2026. 11. 1 제117권 44호

주일1부(묵상)예배

오전 7시30분 인도:김기중목사

예배의부름		인 도 자
송 영		찬 양 대
찬 송	*서서 18장	다 함 께
성시묵상	105.감사절(1)	다 함 께
고백의기도		다 함 께
사죄의선언		인 도 자
신앙고백		다 함 께
찬 송	*앉아서 594장	다 함 께
기 도		정휘동집사
찬송묵상	(내 주의 보혈은, 김명린집사)	다 함 께
봉 헌 송	*서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	다 함 께
봉헌기도		담 임 목 사
교회소식	*앉아서	담 임 목 사
찬 양	추수 감사 찬양	샬롬찬양대
찬 송	637장	다 함 께
성경봉독	아가4:16~5:1(구약P.963)	담 임 목 사
말씀선포	【향기가 가득한 동산】	담 임 목 사
말씀묵상		다 함 께
성도의교제	*서서 55장	다 함 께
축 도	송영	담 임 목 사

오늘의 말씀 / 김승학 목사

아가 4:16~5:1 / 향기가 가득한 동산

성령강림절 후 스물셋째 주일
학원선교주일, 교단연합기독교교육주일
추수감사주일, 전교인 출석 주일

주일2부(전통)예배 / 오전 9시 인도:최성수목사

찬 송	18, 594, 442, 55장	다 함 께
교 독	105.감사절(1)	다 함 께
기 도		서정자장로
찬 양	감사 찬양	호산나찬양대

주일3부(세대통합)예배 / 오전 10시30분 인도:조경화목사

찬 송	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, 594, 442, 은혜 아니면	다 함 께
기 도		천세동장로
찬 양	참 아름다워라	글로리아찬양대
파송과위탁		다 함 께

인도자 :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.
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.
회 중 : 마라나타,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아멘.

주일4부(전세대)예배 / 오후 12시 인도:담임목사

경배와찬양		소리엘찬양단
기 도		이강철집사
말씀선포 1	에스라3:10~13【하나님께 감사하는 삶】	김기중목사
봉헌기도		인 도 자
말씀선포 2	아가4:16~5:1【향기가 가득한 동산】	담 임 목 사

†**내주기도 :** Ⅰ부 - 권오승 집사 / Ⅱ부 - 심재창 장로 / Ⅲ부 - 권중익 장로
청년예배 - 임병태 집사 / 찬양 - 김현호 집사 / 수요 - 최미자 권사

†**이달의 강단 꽃장식 :** 손병주 서정순 박종대 박미라 배외수 안인순 전세종 김은숙 김윤경

❀ **11월 예배위원 -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** ❀

구분	안 내	봉 헌	예배중보기도	차량안내
Ⅰ	안영진 임현오 윤수선 장주애	조영욱	정태순	정영수 김종관 권대기 권오덕 길건성 박수권 정위동 조대웅 황병락 사봉권 이국환 박영재
Ⅱ	천세동 손대호 천순선 신미영	이경현	권향수	
Ⅲ	배승룡 사봉권 이필남 유임숙	전윤호	서필화	
Ⅳ	김신호 곽정열 강은영 조금숙	임병태	김은숙	

주일5부(청년)예배 / 오후 1시45분

경배와 찬양 - 하느래워십 / 기도 - 권순혁집사

설교 - 시편23:1~6(구약P.817) / 내 잔이 넘치나이다 / **최성수목사**

주일오후찬양예배 / 오후 3시 (안동 근대역사 감사음악회) 인도:정영오목사

찬송 - 591, 54 / 기도 - 이완섭장로

설교 - 시편50:23(구약P.838) / 감사로 드리는 제사 / **담임목사**

(2026 부흥사경회 저녁집회로 대신합니다)
시간 : 저녁 7시
장소 : 안동교회 본당 예배실
강사 : 이춘복목사(경기중앙교회)

수요저녁예배 / 저녁 7시 (2026 부흥사경회) 인도:황성훈목사

경배와 찬양 - 연합찬양단 / 기도 - 배외수장로 / 찬양 - 글로리아찬양대

설교 - 요한복음20:30~31(신약P.184) /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/ **이춘복목사**

묵상노트

"향기가 가득한 동산" (아가 4:16~5:1)

1. _____의 향기가 가득한 동산 (4:16)
묵상을 위한 질문) 북풍은 눈과 비를 내려 대지를 적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반면, 따뜻하고 건조한 남풍은 과실을 풍성히 맺고 달게 한다. 또한 북풍과 남풍은 동산 안팎으로 잘 익은 과실의 향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. 그런데 바람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과실과 향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. 그렇기 때문에 향기를 맡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.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우리 동산에도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가?
2. _____의 향기가 가득한 동산 (4:16, 5:1)
묵상을 위한 질문) 본문에서 신랑과 신부는 혼인예식에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객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. 동산의 잔치는 감사와 기쁨, 나눔과 교제의 잔치였다. 구약시대의 초막절, 장막절,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, 수확을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절기였다. 금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?